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20회

20. 예언을 주신 이유(9.11.10. 20회)

2010년 9월 11일(안식일 아침)

[벧후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나라.

序;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주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구약 예언과 그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70이레에 대한 예언 설명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보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구주가 세상에 오실 방법과 오시는 장소와 오시는 때와 고난당하는 사실이 아주 자세히 예언 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데 확실한 신뢰를 주는 사실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을 주신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 된 것인데 어렵게 왜 예언 같은 것을 공부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애청자들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실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성경의 기록을 확신하게 함.

사람들은 자연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겠지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과학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에 이르는 실험 과정을 거쳐서 증명된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실험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동일한 현상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주기가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한 생애로는 실험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동일 현상이 우리 생전에 여러 번 반복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될 때 실험이 가능하고 그래서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그 실험을 발표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믿는 수밖에 없지요. 물론 요즘은 옛 기록을 무조건 믿지 않지요. 면밀히 검증해서 믿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합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명장이라는 것을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요. 그것은 역사적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시고 확신하도록 하는 사랑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하나가 만유의 주로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역사의 주로서 예언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생명의 주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려는 것이고 예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과 행복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언, 특히 역사에 대한 예언은 미리 쓴 역사입니다. 예언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예언을 하신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실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연과학이 실험 하듯이 역사의 현장을 시험관으로 삼고 예언을 실험 재료로 삼아서 그 성취여부를 확인하여 성경의 확실성과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고 확인할 때 성경말씀과 성경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욱 합리적으로 굳건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언을 연구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니엘서는 예수께서 친히 연구하라고 하신 예언서입니다.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께서는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서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좀 더 다니엘의 예언을 살펴려고 합니다만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에 그것을 다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애청자들과 그 예언의 실상을 온전히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언은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히 성취되어서 성경말씀의 확실성과 성경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조처를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에 다니엘 9장의 70이레 예언과 그 성취를 살펴본 것을 맛을 확실히 본 셈입니다.

2. 신앙을 바르게 지도함

예언이 이렇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

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적 시간의 좌표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을 모르면 각 시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딤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언의 지도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믿음은 파선하고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족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담부터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아벨부터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시대를 따라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봅시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품이 고상하고 행실이 성실하고 선했다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른 믿음으로 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는 소돔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돔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에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에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파선하게 되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믿는 믿음은 속죄제를 드시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철석같이 믿고 신실한 삶을 산다고 해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범죄하면 그 속죄를 위하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는 속죄를 위하여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 같이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십자가 전에는 속죄가 되었지만, 십자가 후에는 오히려 십자가를 불신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전에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십자가 후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구세주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속죄 사업을 바라보며 믿었는데, 그 믿는 믿음이 희생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불신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만 신약시대 곧 은혜시대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착가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창세로부터 세상 끝 날까지 오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 전한 복음이나 신약시대에 전하는 복음이나 복음은 똑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을 얻는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 뿐입니다.

[히4:2]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로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는 믿음은 시대를 따라 그 나타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믿음은 파선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버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믿음이 있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전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지시하는 그 시대의 믿음이 있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위치를 가르쳐주는 시대적 진리를 성경은 현대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벧후1:12]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한 말은 “파루세 알레테이아”인데 영어는 KJV에는 “the present truth”라고 번역했습니다. “현재의 진리”라는 말씀이지요. 한글 킹제임스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번역했습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현재의 진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입니다.

[벧후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는 현재의 진리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은 예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언의 등불을 밝힐 때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시대적 위치를 바르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발을 굳게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모르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연구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지시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끝 날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마지막” “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섯 번 쓰였고, 끝이라는 말이 8번쯤 나옵니다. 끝에 관한 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되 성경적 방법으로 바르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시록까지 연구하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그 두 책은 여간 조심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굳게 서서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나 앞으로 성취될 사건들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실히 교회 출석 잘 하고 주의 사업 열심히 했는데 예언이 지시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믿음이 파선하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예언을 몰라서 엉뚱한데서 믿고 있으면 예수께서 데리러 오실 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으면 함께 하늘에 갈 수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기로 지정한 자리를 몰라서 엉뚱한 자리에서 기다린다면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예언이 지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어굴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항의하고 싶을 것입니다.

[마7:22,23]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항의가 그들에게는 일리 있는 것일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단호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했고 선한 양심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3. 이 시대의 현대진리

그러면 21세기 이 시대의 현대진리는 무엇이며, 신앙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그 사실이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과 21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역사적 연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70이레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연대에 대한 예언이며 특히 예수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을 때와 고난 받을 때에 대하여 예언했으며 그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것처럼 말세에 대한 예언도 분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6,7에는 언제부터가 말세인지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해석해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12:6,7]: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때가 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삼년 반을 뜻합니다. 때는 곧 몇 해를 말하는 년수에 대한 말입니다. 단 11:13에 해석했습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 말씀에서 “몇 때 곧 몇 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인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말씀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며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때가 지나면 끝 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하루는 역사적으로는 1년으로 계산하라는 겔4:6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3년 반은 날 수로는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지시대로 셈하면 1260년이 됩니다. 언제부터 1260년인지 알면 말세가 언제인지 알 수 있지요.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살후2:1~4]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의 보면 멸망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7:25,26]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즉 끝까지 멸망할 것이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단12:6,7에는 성도의 권세를 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25,26에 말한 세력이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특히 때에 대한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살후2:3,4에 의하면 이 멸망의 아들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

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적어도 1260년간 세상을 통치합니다.

[계13:5~7]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이 존재는 다니엘 7장 25절에 나타난 존재와 같습니다. 이 존재가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니다. 42달은 삼년 반이고 1260일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세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곧 성전에 앉는 다는 말이지요. 이 권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 세력은 자기 나라만 다스리지 않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 영국도 이렇게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2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 세력이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을 한꺼번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와 신앙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스린 세력의 정체를 알 것입니다. 이 세력이 세상을 통치한 기간을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니까 교회 세력이라는 것을 알기에 넉넉하지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마5:14~16)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한 교회 세력은 빛이 아닌 것이 확실하지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다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상을 통치한 세력은 흑암의 세력인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교회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끝날 때부터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겠고 그 기간이 끝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예언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말세에 대하여 예수께서 질문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세상 끝이라고 했을 때 끝이라는 말은 순텔레이아 인데 맨 끝을 뜻하는 말이기보다는 끝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끝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세상의 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끝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답이지요. 그러니까 그 끝부분의 시작이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날 때라는 것입니다.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했을 때 끝이라는 말은 끝부분의 끝 곧 맨 끝을 뜻하는 말인 “텔로스”입니다.

21세기는 예언된 끝 부분의 어디쯤 될까요? 암흑시대가 끝나면서 끝부분에 이르렀다면 지금은 끝부분에서도 아주 끝에 다가와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언이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좌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입니다. 거기에는 세 천사의 기

별이 있습니다.

[계14:6~12]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인데 첫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창조주 경배를 거절하면 무너지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유황불에 고통을 면할 수 없다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바른 믿음의 자리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다 읽으면 한 때 두 때 반 때 후에 용에게 핍박을 받는 여자 곧 교회가 땅의 도움을 받아 남은 자손이 구성되는데, 그들이 바로 말세에 바른 믿음의 위치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14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언된 믿음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예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계명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계명이 들어 있는 계명이 바로 제 4계명 안식일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에 기록한대로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 시대에 비추는 현대 진리입니다. 예언의 안내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실에 대한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될 일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머지않아 이 죄의 세상은 끝날 것이고 예수님은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듣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언의 인도를 받아 믿음이 선한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애청자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아무런 방해도 실패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을 살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쪼록 예언의 지도를 받아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길로 가지 않고 시대를 따라 예언으로 주시는 현대진리를 깨달아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예언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빛을 따라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